

# 민주당 '권리당원' 모시기 과열 경쟁

### 총선 경선률 50% 반영...8월1일전 입당해야 경선권리 행사 광주시당 최근 2천명 모집...다른 지역구 등록 등 부작용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경선률을 확정하는 등 각 당이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광주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총선 공천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보 노출을 우려해 수집한 당원 명부를 당에 제출하는 시점을 조율하고, 사전 당비 납부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이전에 입당을 해야 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총선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입당·당비 납부 시기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당원 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유사한 '권리당원 50%+국민경선 50%'로 당원과 국민 여론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총선 경선률을 채택하면서 총선 경선 과정의 당원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권리당원은 절반의 선택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경선 및 공천의 핵심 변수가 됐다. 또 신인 가점이 크게는 것도 당원 확보 경쟁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의 총선 경선률에 따르면 사·도당 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아닌 사람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0%의 가산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신인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당원 확보에 더욱 몰두하고, 반대로 가산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치 신인의 당원 모집도 열기를 내뿜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권리당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4만4000여명이었고, 이후 3만3000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최근 2000여명의 신규 당원이 모집됐고, 현재 상순추세인데 7월 말에 한꺼번에 신규 당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 출마 예정자들이 신규 당원 명단을 당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8월 1일에 맞춰 시당에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당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난 지방선

거 수준인 4만여명으로 당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력 확보 등 당원 등록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신사를 허위 기입해 사전 당비 자동납부를 막고, 허위 주소로 다른 지역구에 당원을 등록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거주지 선거구에 당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다른 선거구 지인 주소로 입당신청을 내거나 여러 당에 입당하는 이중 당적 등의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최근 접수된 일부 당원은 휴대전화번호와 통신사가 일치하지 않아 당비를 자동납부 받을 수 없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6개월치 당비만 자동납부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통신사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원 등록 인력을 늘려서 당비 대납과 허위기재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해찬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방문, 회원들과 정책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화기애애' 호프 회동... 다음주 국회 열리나

###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물밑 의견접근... 오신환 "주말 뒤 가시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일 저녁 여야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통해 공식 대화 채널을 가동, 이르면 다음 주에는 5월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톱 크게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에 국회 복귀의 '명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의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냉각기'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전날 맥주 회동 등에 관해 일체 언급을 삼가고,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리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민주당의 차례다. 민주당이 해법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물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다음 달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법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상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미 공조속 북과대화 모멘텀 유지"

### 문대통령, 한·미 군 지휘부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업의 속에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

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靑 "말은 그 사람의 품격"

### 고민정 대변인, 황교안 '북 대변인 짓' 발언에 반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 마디 못 하니까 여기서도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연일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보통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다"면서 "그 말로 답변을 같음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 자유공원 맥

아더 동상 앞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예게는 말 한 마디 못 하니까 여기서도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연일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보통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다"면서 "그 말로 답변을 같음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예게는 말 한 마디 못 하니까 여기서도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연일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보통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다"면서 "그 말로 답변을 같음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바른미래, 깊어가는 갈등

### 바른정당계, 공개회의서 손학규 대표 집중 성토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공개회의 석상에서의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집단 망신 주기까지 일삼으며 감정의 골만 키우고 있다.

오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손 대표가 전날 임명한 채이배 선임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계가 주축이 된 원내지도부로부터 '용단 폭격'을 받았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채 정책위의장을 겨냥, "원내대표가 회의 시작할 때 소개도 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며 "원내대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운명이 됐다"고 비꼬았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도 "손 대표가 최고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 의원을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

었고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손학규의 독선과 농담으로 당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비판했다.

군은 얼굴로 무차별 공격을 받은 채 정책위의장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의원 다수가 대표 사퇴를 요구한다고 해서 당원이 붉은, 임기가 보장된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당직 임명 철회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요청을 손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두고도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긴급 최고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손 대표는 다음 날인 22일 임시 최고위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14002 point

J6 10 point  
J5 8 point  
J3 6 point  
J2 5 point  
J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강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창밖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